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황 성 자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인간을 총체적인 존재로 보고 신체적,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영적 측면의 전인간호에 그 목적을 두며,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이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간호 대상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양질의 간호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실무실습을 효율적이면서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하지만 간호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은 물론, 임상의 새로운 환경과 예상치 못하는 위기 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수행, 과중한 업무, 무력감 등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처음 임상실습’이라는 자체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Mahat, 1998), 의료인의 태도,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실습환경, 실습업무 부담 등의 실습상황, 역할갈등, 심리적 요인, 지식, 기술, 사회적 요인, 과제물, 학사일정, 등(김순례, 이종은, 2005; 황성자, 2002)의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희와 김기미(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간호학생들은 간호현장에서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야하는 상황에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간호이론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실습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김문실, 1995), 간호대상자로부터의 거부감으로 인해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간호제공 경험 기회마저도 제한되는 등 간호학생들의 임상실무실습 교육상황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다. 그 결과 간호학생들은 임상실무실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Bandura(1977)의 자기효능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기대 및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정도에 따라 바람직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또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임상실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정도는 증진 가능한 것으로서(이영휘, 1994)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학업·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 자신을 바람직스럽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간호전문직에 필수인 임상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하리라 사료된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도 역시 증진 가능한 것으로(오정미, 김경희, 2001; 이성희, 2005), 간호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학전공에 만족하고(함영희, 김상남, 2001; 장은영, 2003), 학업·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낮았으며(박현숙 등, 2002; 장은영, 2003), 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숙 등, 2002). 그 외에도 간호학생

주요어 :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1)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교신처자 E-mail: sung@mpu.ac.kr)

의 임상실습 전 상태불안과 자아존중감(함영희, 김상남, 2001),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반응양상(장은영, 2003)의 상관관계 연구결과들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태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양상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등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일은 간호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믿어진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임상실습 지도자로서 4년제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임상실무실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용어의 정의

- 임상실습 스트레스 : 임상실무실습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상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황성자(2002)가 문헌고찰과 간호학생들로부터 수집한 개방형 질문지의 응답을 분석, 정리하여 개발한 5점 척도의 5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기효능감 : 자신이 바람직한 기대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이영희(1994년)가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아존중감 :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변안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표집으로 연구자가 실제 지도하고 있는 일 간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모든 간호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위의 결과기대 및 그 행위를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개인이 바람직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Bandura(1977)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한 것이다. 즉 간호학생들의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자체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에 소재한 일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과 4학년으로 하였고, 자료 수집은 3학년은 2006년 9월 26일, 4학년은 10월 2일에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들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총 175개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한 172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

●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황성자(2002)가 문헌고찰과 간호대학생들이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여 개발한 총 57 문항의 5점 척도 도구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 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영역으로 상황특성에는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6문항, 실습환경 8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 갈등 2문항, 개인특성에는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 기술적 요인 6 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 외부적 조정요인에는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이 각 각 포함되었다. 각 문항은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 = .94$ 였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이 개발한 5점 척도의 17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영희(1994)가 사용한 것이다. 점수는 '확실히 그렇다' 5점, '확실히 아니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erer와 Adams(1993)에 의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안 수정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부정문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유의한 집단 간의 차이는 사후검증으로 Scheffe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171명이 여자이고 1명만 남자였으며, 학년 별 분포는 3학년 44.8%, 4학년 55.2%였다. 나이는 20세-21세가 54.1%, 22세 이상이 45.9%였다. 종교는 기독교 75.6%, 천주교 9.9%, 불교, 유교, 무교 등 기타가 14.5%였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직업의 용이 및 외국진출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직 25.0%, 주위권유 및 성적 고려 20.9%, 적성과 흥미 7.0%, 선교 및 기타 2.9% 순 이었다. 졸업 후 1차 진로는 병원취업이 87.8%로 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진학, 산업 간호, 보건교사, 외국진출, 선교, 간호장교 등의 기타가 12.2%였다. 실습에 도움이 되었던 임상지도자는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가 5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프리셉터는 43.6%였다. 실무실습 만족도는 52.3%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었고 보통 만족이 43.6%, 불만족이 4.0%였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60.5%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 32.6%는 보통, 7.0%는 불만족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정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총점평균은 3.56/5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3.52/5점, 자아존중감은 3.10/4점이었다. 영역 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은 외부적 조정요인 3.78점, 상황특성 3.64점, 개인특성 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은 하부영역은 외부적 조정요인의 업무배정과 보고서(4.05)였고, 그 다음 상황특성의 역할갈등(3.81점), 개인적 특성의 심리적 요인(3.56점)이 각 각 그 뒤를 따랐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은 4학년 3.61점, 3학년 3.51점이었고, 나이 20-21세는 3.57점, 22세 이상은 3.55점, 종교에서는 기독교 3.61점, 천주교 3.51점, 기타 3.37점 순이었고, 간호학 선택 동기에서는 선교 희망자 및 기타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취업용이와 외국진출 3.61점, 주위권유와 성적고려 3.59점, 전문직 3.49점, 적성과 흥미 3.45점 순이었다. 졸업 후 1차 진로에서는 병원취업이 3.58점, 진학, 산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stress

(N=172)

Variables	Classification	Frequency(%)	Clinical stress				
			Mean	S.D.	t(F)	p	Scheffe
Gender	Male	1(0.6)	3.04				
	Female	171(99.4)	3.57	0.46	-1.14	0.261	
School grade	3	77(44.8)	3.51	0.50			
	4	95(55.2)	3.61	0.43	1.39	0.167	
Age	20-21	93(54.1)	3.57	0.48			
	22<	79(45.9)	3.55	0.45	0.23	0.816	
Religion	Protestant	130(75.6)	3.61	0.45			
	Catholic	17(9.9)	3.51	0.45	2.90	0.058	
	Other	25(14.5)	3.37	0.51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Interest	12(7.0)	3.45	0.51			
	Profession	43(25.0)	3.49	0.46			
	Job/Advance into abroad	76(44.2)	3.61	0.47	1.32	0.263	
	Advice/High school grade	36(20.9)	3.59	0.43			
	Mission/Other	5(2.9)	3.71	0.37			
Primary course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ing	151(87.8)	3.58	0.46	1.12	0.264	
	Other	21(12.2)	3.46	0.50			
Most helpful tutor	Staff nurse	97(56.4)	3.62	0.47	2.04	0.043*	
	Preceptor	75(43.6)	3.47	0.45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Satisfied	90(52.3)	3.49	0.46			③>①
	Average	75(43.6)	3.60	0.45	6.44	0.002**	③>②
	Unsatisfied	7(4.0)	4.11	0.20			
Degree of nursing satisfaction	Very satisfied/Satisfied	104(60.5)	3.57	0.46			
	Average	56(32.6)	3.51	0.48	0.76	0.467	
	Unsatisfied	12(7.0)	3.68	0.43			

<Table 2> Mean scores of clinical stress, self efficacy, self-esteem (N=172)

Variables	Min	Max	Mean	S.D.
Clinical stress total	2.44	4.70	3.56	0.46
Situational characteristics	1.90	4.80	3.64	0.52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1.33	4.83	3.61	0.68
Attitude of pt/family	1.83	5.00	3.80	0.67
Clinical environment	1.38	5.00	3.53	0.64
Clinical situation	2.11	4.56	3.46	0.52
Role conflict	1.50	5.00	3.81	0.73
Personal characteristics	1.71	4.64	3.29	0.60
Psychological factors	1.71	5.00	3.56	0.66
Knowledge/skills	1.83	4.83	3.42	0.61
Social factors	1.00	5.00	2.91	0.75
External regulators	1.95	5.00	3.78	0.61
Assignment/reports	1.50	5.00	4.05	0.78
Academic schedule/regulations	2.00	5.00	3.50	0.64
Self-efficacy total	1.41	4.82	3.52	0.49
Self-esteem total	1.80	4.00	3.10	0.40

간호, 보건간호, 간호장교 등의 기타가 3.46점이였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실습지도자는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라고 한 대상자는 3.62점, 프리셉터라고 한 대상자는 3.47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4, p=.043$).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대상자의 점수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보통인 대상자 3.60점, 아주

만족이나 만족인 대상자 3.49점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44, p=.002$).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 한 결과 불만족인 그룹은 만족인 그룹보다, 또 보통인 그룹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인 그룹의 점수가 3.6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만족 3.57점, 보통 3.51점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Table 3>와 같다. 학년별 평균은 4학년 3.59점, 3학년 3.42점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으며($t=2.29, p=.023$), 나이는 20-21세가 3.50점, 22세 이상은 3.54점이었고, 종교는 기독교 3.55점, 천주교 3.43점, 기타 3.42점 순이었으며, 간호학 선택 동기는 선교 및 기타 3.76점, 적성과 흥미 3.57점, 주위권유와 성적고려 3.52점, 취업과 외국진출 3.51점, 전문직 3.48점 순이었다. 졸업 후 1차 진로는 병원취업이 3.52점, 기타가 3.46점이었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임상지도자가 간호사인 그룹은 3.54점, 프리셉터인 그룹은 3.48점이였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아주 만족 또는 만족이 3.55점, 보통이 3.49점, 불만족이 3.32점 순이었 고, 간호학 만족도는 아주 만족 또는 만족이 3.60점, 보통이 3.41점, 불만족이 3.26점 순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able 3> Mean scores of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	S.D.	t or F	p	Scheffe
School grade	3	3.42	0.57	2.29	0.023*	
	4	3.59	0.40			
Age	20-21	3.50	0.51	0.56	0.575	
	22<	3.54	0.47			
Religion	Protestant	3.55	0.43	0.96	0.384	
	Catholic	3.43	0.65			
	Other	3.42	0.61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Interest	3.57	0.49	0.42	0.795	
	Profession	3.48	0.42			
	Job possibility/Abroad	3.51	0.55			
	Advice/High school grade	3.52	0.42			
	Mission/Other	3.76	0.50			
Primary course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ing	3.52	0.47	0.54	0.587	
	Other	3.46	0.60			
Most helpful tutor	Staff nurse	3.54	0.47	0.80	0.424	
	Preceptor	3.48	0.54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Satisfied	3.55	0.48	0.91	0.403	
	Average	3.49	0.49			
	Unsatisfied	3.32	0.54			
Degree of nursing satisfaction	Very satisfied/Satisfied	3.60	0.44	5.00	0.008**	①>②
	Average	3.41	0.52			
	Unsatisfied	3.26	0.59			

를 보았다($F=5.00, p=.008$). 집단간의 차이를 Scheffe 검정한 결과 만족인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자기효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Table 4>와 같다. 학년에서는 4학년 3.14점, 3학년 3.06점이었었다. 나이는 20-21세 3.15점, 22세 이상 3.05점, 종교에서는 천주교 3.15점, 기독교 3.13점, 기타 2.93점 순이었으며, 간호학 선택 동기는 전문직 3.16점, 적성과 흥미 3.13점, 취업과 외국진출 3.09점, 선교

<Table 4> Mean scores of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72)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	S.D.	t or F	p	Scheffe
School grade	3	3.06	0.45	-1.24	0.216	
	4	3.14	0.36			
Age	20-21	3.15	0.43	1.59	0.113	
	22<	3.05	0.36			
Religion	Protestant	3.13	0.38	2.77	0.066	
	Catholic	3.15	0.36			
	Other	2.93	0.49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Interest	3.13	0.11	0.30	0.878	
	Profession	3.16	0.06			
	Job possibility/Abroad	3.09	0.05			
	Advice/High school grade	3.06	0.06			
	Mission/Other	3.08	0.18			
Primary course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ing	3.12	0.39	1.16	0.249	
	Other	3.01	0.45			
Most helpful tutor	Staff nurse	3.10	0.41	0.55	0.584	
	Preceptor	3.07	0.39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	Very satisfied/Satisfied	3.19	0.39	6.56	0.002**	①>② ①>③
	Average	3.03	0.39			
	Unsatisfied	2.76	0.38			
Degree of nursing satisfaction	Very satisfied/Satisfied	3.19	0.37	14.22	0.000**	①>③ ②>③
	Average	3.04	0.37			
	Unsatisfied	2.61	0.41			

및 기타 3.08점, 주위권유와 성적고려 3.06점 순이었다. 졸업 후 1차 진로는 병원취업이 3.12점, 기타가 3.01점이었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실습지도자가 간호사인 그룹은 3.10점, 프리셉터인 그룹은 3.07점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아주 만족 또는 만족이 3.19점, 보통이 3.03점, 불만족이 2.76점 순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F=6.56, p=.002$). Scheffe 검정 결과 만족인 그룹이 보통인 그룹보다, 또 불만족인 그룹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만족도는 아주 만족 또는 만족이 3.19점, 보통이 3.04점, 불만족이 2.61점 순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4.22, p=.000$). Scheffe 검정 결과 만족이 불만족보다, 또 보통이 불만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자기효능감 정도($r=.022$)와 자기존중감 정도($r=-.036$)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정도와 자아존중감 정도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r=.171, p=.0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N=172)

	Clinical stress r	Self esteem r
Self efficacy	0.022	0.171*
Self esteem	-0.036	

본 의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총점평균은 김순례와 이중은(2005)의 연구대상자 간호대학생보다도, 또 배고운 등(2006)의 연구대상자 신장이식수술환자보다도 높은 것으로써, 본 연구대상자들이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영역 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외부적 조정요인이 가장 높고, 그 하부영역에서는 업무배정과 보고서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관련한 문항으로는 과제물 및 평가의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4.27점으로 가장 높았다. 김순례와 이중은(2005)의 연구에서도 '실습업무 부담'이 간호대학생들의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보였다. 다시 말하면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현장의 과중한 업무배정으로 힘들어하고, 또 실습을 하면서도 보고서 작성과 발표준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습자체에 충분히 집중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하고 긍정으로 임상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과제부담 없이 임상현장 실습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실습평가 기준을 조정하고, 실습하는 학생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 주며, 학생들의 능력을 배려하여 업무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총점평균과 자아존중감 총점평균은 박현숙 등(2002)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정도가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했는데 문항수와 척도가 각 각 달랐으므로 두 연구 결과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같은 것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4학년이 3학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4학년은 졸업반으로서 국가시험과 취업문제 등으로 이미 긴장과 초조함이 고조된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양진주(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상급학년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하급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고학년은 졸업학년으로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 하였다. 또 20-21세 그룹이 22세 이상 그룹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암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김희승(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지만, 대상자 특성이 다르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도자가 간에는 간호사였다는 그룹의 스트레스 정도가 프리셉터였다는 그룹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프리셉터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이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리셉터 제도의 효율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프리셉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이 암시된 의미 있는 결과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임상실습에 불만족할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보였다. 그러나 양진주(2000)의 연구결과에서는 실습 만족도 간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 만족도에서는 간호학에 불만족할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양진주(2000)와 장은영(2003)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실습스트레스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즉,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긍정적인 임상실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장교육의 실태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양진주, 2000) 간주되었다. 박현숙 등(2002)이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취업 스트레스와 대응방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정서 중심적 대응, 또 스트레스와 소망적 사고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간호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도록 강화한다면 실습이 긍정적으로 이어지리라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상급학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급학년이 되면서 간호지식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나이, 종교 간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은영(1999)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였다. 또한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자기효능감 정도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이는 박현숙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생활에 만족할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행위이행(구미옥, 1994; 박영숙, 1999; 변영순, 김옥수, 1999; 오복자, 1995; 이미화, 최인희, 2001; 장혜숙 등, 2000; 최연희, 1996; 황성자, 1998)을 예측 할 수 있게 하고, 또 교육으로 증진 가능한 것이다(박영숙, 1999; 안재현, 2001; 이성희, 2006; 이영희, 1994). 즉, 자기효능기대 증진은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를 위한 자원으로는 성취완성,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과 정서적 각성의 이완을 사용할 수 있다(Bandura, 1977). 그러므로 임상실습 지도자를 모델로 하는 대리경험과, 제안, 권고, 자기지시 등의 언어적 설득, 그리고 이완, 생체회환 등의 정서적 각성을 사용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임상실습에 만족할수록, 또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서, 함영희와 김상남(2001)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였다. 자아존중감 역시 증진 가능(오정미, 김경희, 2001; 이성희, 2006)한 것이므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증진된다면 임상실습과 간호학 전공에 만족할 수 있게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와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는 순 상관관계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박현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로서 자기효능감이 증진할수록 자아존중감도 증진하는 것을 암시해주었다. 또한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전 상태불안과 자아존중감(함영희, 김상남, 2001)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반응양상의 상관관계 연구(장은영, 2003)결과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태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양상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에서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결과가 박현숙 등(2002)의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두 연구에서 모두 같은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지만 도구의 문항수와 척도의 수준이 서로 다른 것이었고, 또 박현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2개 간호대학에서 보다 많은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학 전공의 일반적 학업·취업스트레스의 관계를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일 간호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에 대상자의 대표성과 도구 적절성의 문제로 인한 차이가 아닌지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적 조정요인 등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면 부분적 상관관계가 확인 되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확보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추 후 연구를 수행한다면 좀 더 명확한 관계성이 확인될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임상실습 지도교수와 임상지도자들로부터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의 자기효능감 증진으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에게 모델링, 긍정적인 피드백, 심리적 안정감의 실습환경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간호교육기관은 임상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보답을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간호학생들의 실습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어지리라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J시에 소재한 일 4년제 간호대학 재학생 172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9문항, 임상실습 스트레스 57문항, 자기효능감 17문항, 자아존중감 10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3.56/5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3.52/5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10/4점이 있었다. 영역 별 평균은 외부적 조정요인 3.78점, 상황특성 3.64점, 개인 특성 3.29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가장 도움되었던 실습지도자’ 간($t=2.04, p=.043$), 임상실습 만족도 간($F=6.44, p=.00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도는 학년 간($t=2.29$, $p=.023$), 간호학 만족도 간($F=5.00$, $p=.0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임상실습 만족도 간 ($F=6.56$, $p=.002$), 간호학 만족도간($F=14.22$,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상관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 상관관계 수준은 낮은 편이었다($r=.171$, $p=.05$).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 다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학년 진급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임상실습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성희, 김기미 (1994).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 33(2), 59-72.

구미옥 (1994). 당뇨병 환자의 자기효능, 자기조절, 상황적 장애, 자기간호행위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4(4), 635-651.

김문실 (1995).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간호학교수의 실무참여에 관한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5-16.

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98-106.

김희승 (2001). 입원한 암환자 가족원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신체증상간의 상관관계. *성인간호학회지* 13(2), 317-326.

박영숙 (1999). 간질교육프로그램이 성인 간질환자의 자기효능과 자기관리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29(2), 405-417.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배고운, 이영희, 김화순, 임지영 (2006). 신장이식환자의 스트레스, 강인성, 자가간호에 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8(1), 136-145.

변영순, 김옥수 (1999). 골다공증 여성의 자기효능감과 생활양식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3), 530-539.

안재현 (2001). 자기효능증진 운동훈련 프로그램이 신장이식 환자의 불안,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13(2), 223-232.

양진주 (2000).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기표현행동 및 간호수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25, 393-417.

오복자 (1995).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요인 분석 - 위암환자 중심-. *대한간호학회지* 25(4), 681-695.

오정미, 김경희 (2001). 성장호르몬 요법이 삶의 질, 우울, 자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52-59.

이미화, 최인희 (2001). 여대생에게 실시한 지지교육이 유방자가검진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397-408.

이성희 (2006). 학습동기향상프로그램이 학습부진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습관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1), 5-12.

이영희 (1994). 효능기대증진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과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본태성 고혈압환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장은영 (200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반응양상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학위논문, 서울.

장혜숙, 이정란, 이명실, 윤연선, 김영희 (2000).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건강증진행위와 자기효능감 및 역할 스트레스. *대한간호학회지* 30(2), 402-412.

전병재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전은영 (1999). 1개 간호대학생의 체질별 자기효능 및 건강증진 생활방식. *성인간호학회지* 11(2), 308-317.

최연희 (1996). 당뇨병환자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과 환자역할 이행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6(1), 127-137.

함영희, 김상남 (200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전 상태불안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금구논총* 8, 45-54.

황성자 (1998). *당뇨병환자의 운동양상 영향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황성자 (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개발 및 도구검증. *예수간호논문집* 14(1), 35-54.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19-215.

Mahat, G. (1998). Stress and coping: Junior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settings. *Nursing Forum*, 33(1), 11-19.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Sherer, M., & Adams, C. (1993). Construct and validation of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 899-902.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ang, Sung Ja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2 nursing students in J city. **Result:** The average scores were; clinical stress 3.56/5, self-efficacy 3.52/5, and self-esteem 3.10/4. Clinical stress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linical tutors($t=2.04$, $p=.043$) and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F=6.44$, $p=.002$). Self-efficacy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grade($t=2.29$, $p=.023$) and degree of nursing major satisfaction($F=5.00$, $p=.008$). Self-esteem leve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gree of clinical satisfaction($F=6.56$, $p=.002$) and degree of nursing major satisfaction($F=14.22$, $p=.000$). Self-efficacy level and self-esteem level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low positive correlation($r=.171$, $p=.05$). **Conclusion:** A strategy for development of clinical stress management program is needed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Stress, Self-efficacy, Self-esteem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Whang, Sung Ja

Department of Nursing,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168-1 Ika Junghwasandong, Jeonju, Jeonbuk 560-714, Korea
Tel: 82-63-230-7758 Fax: 82-63-231-7790 E-mail: sung@mpu.ac.kr